

‘고용 서프라이즈’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 5월 고용동향 평가와 해설

2010.6.14 | 이상동_새사연 연구원 | sdlee@saesayon.org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완전한 고용 회복
2. 고용회복의 동력
3. 남아 있는 과제

요약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

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한국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빠른 고용 회복의 동력은 수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다.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 고용 회복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은 2010년에도 저평가된 원화 가치를 기반으로 여전히 고용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용회복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이익의 성과가 집중되는 대기업이나 확대재정정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과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고용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은 60%대로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후 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자영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유독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성장-고용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 취업자 증가율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성장률에 비해 그 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능력 감소를 가져와 생산과 소비 사이 경제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럽경제위기나 환율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성장-고용의 괴리 해결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하반기 고용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상반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좋은 고용지표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 겹쳐 ‘금리 인상’의 위협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원화강세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상반기 ‘고용 서프라이즈’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를 통해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 등의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1. 5월 고용성적이 ‘충격’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가히 놀랄만하다.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고용지표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이 여전히 고용지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이고 있다.

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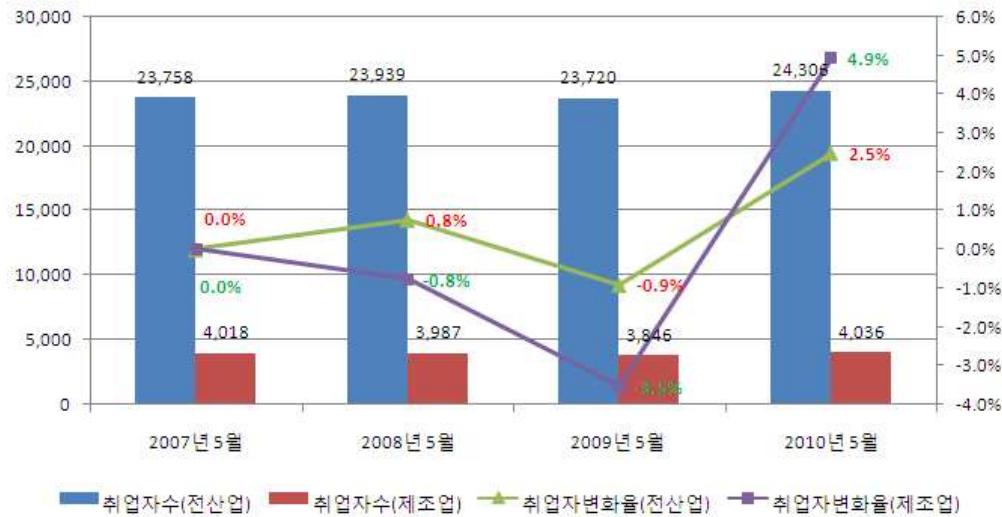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결과가 지속된다면 이는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유휴인력까지 흡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일자리 증가는 유휴인력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010년 5월 취업자 수는 2,431만 6천명으로, 이는 전년동월 대비 58만 6천명, 전월대비 38만 2천명 증가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0년 5월 고용률이 60%에 도달했다.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전월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계절조정 고용률은 59.1%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수출제조업이 5월에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 주력 부문이 정상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라는 취약성이 재강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4.9%포인트로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제조업의 취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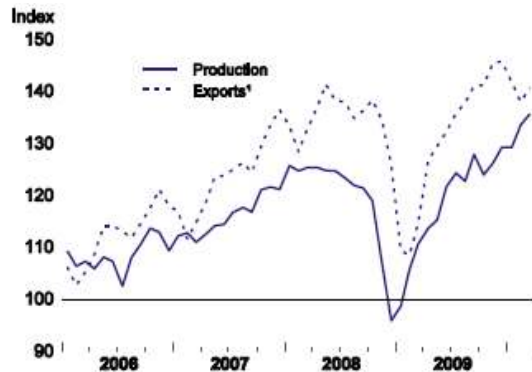
실업률은 3.2%로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 지난 1월 5.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빠르게 안정된 것이다.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한국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비교한 수치를 보면, 계절조정 고용률은 한국이 59.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7%포인트 치솟았으나 일본은 -0.1%포인트 감소(09년 5월 대비 10년 4월 수치), 미국은 -1.0%포인트 감소(09년 5월 대비 10년 5월 수치), 그리고 호주는 현상 유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침체 극복 및 고용수준 회복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일본,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의 경우 고용률은 여전히 감소 내지 유지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해 왔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된 실업률을 지속하며, 빠른 속도로 고용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위기극복 국면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2. 고용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중소기업’

[그림 2] 한국의 수출 및 생산



출처 : OECD (2010) 2010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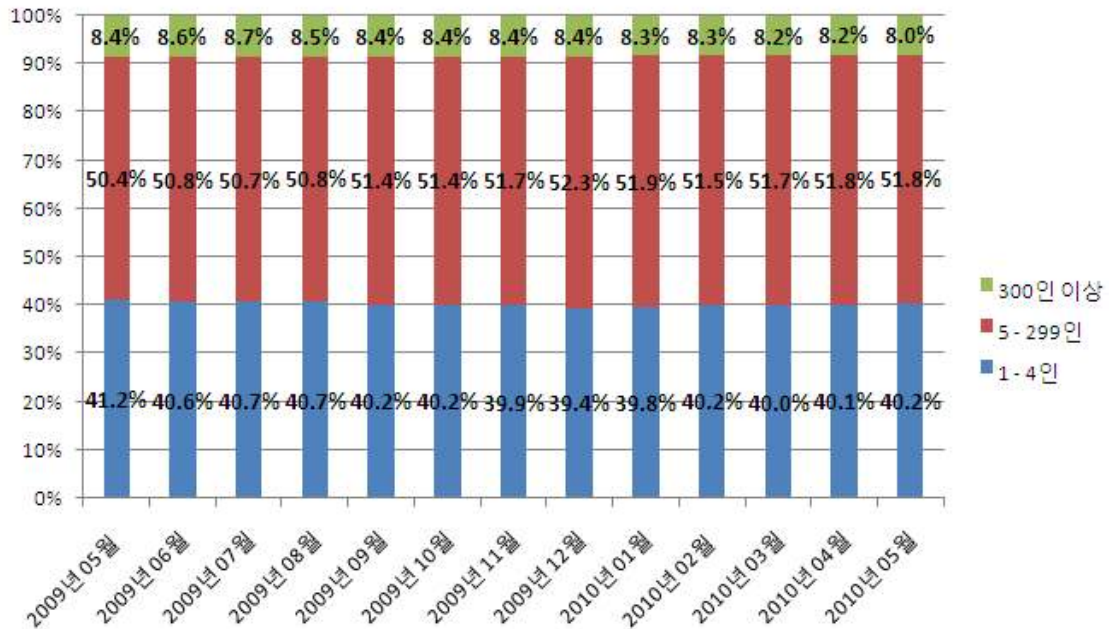
※ 3개월 이동평균으로 표시

OECD는 “2010년 경제전망(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동력으로 수출과 확대재정정책을 들고 있다. 실제 2009년 0.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데는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4분기 전기 대비 -5.1%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의 성장을 경험했으나, 이를 2009년 1분기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로 보완하면서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여 연간 0.2%의 성장을 기록했다.

2010년의 현 시점에서 여전히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2]는 금융위기를 전후 하여 한국의 수출과 총생산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수출의 증가가 총생산 증가, 성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을 기반으로 한 총생산의 증가는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데, 특히 수출하는 상품과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이나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의 고용 증가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 400만 명을 회복한 것은 최근 지속적인 수출 호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고용회복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이익의 성과가 집중되는 대기업이나 확대재정정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3]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중간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5월 전체 노동자 중 5인 이상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중간 규모 기

[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분포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전년동월대비 1.4%가 증가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이나 5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 들었다.

취업자 수로 보면 2010년 5월 현재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1,25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만 7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증가에 해당하는 58만 6천명보다 많은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월대비 1만 1천명의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기업이 고용 창출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최근 고용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은 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증가,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떨어지며 고용회복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앞선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3. 고용회복 국면에서 남아 있는 ‘여전한 과제’

통계청의 “2010년 5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고용이 회복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률은 60%대를 회복했고, 취업자의 숫자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후 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든 계층은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었다.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났고, 임시/일용직의 감소를 뛰어 넘는 상용직의 증가가 일어났다. 자영업의 경우는 여전히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청년들은 고용회복의 과실이 전혀 돌려지고 있지 않다.

취학연령층에 해당하는 10대를 제외하면, 20대는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 20대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의 일부는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불경기로 인해 기업이 경력자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함으로써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 밖에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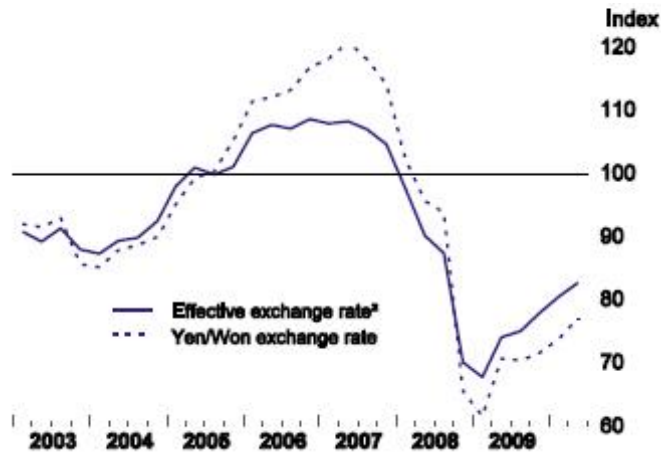
이 경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찾고,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성장-고용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 취업자 증가율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성장률에 비해 그 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금융위기의 와중인 지난 해 3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1분기에 8.2%의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2.6%에 그침으로써 성장과 고용의 괴리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능력 감소를 가져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경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성장과 고용의 괴리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성장 수준에 맞는 고용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OECD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경

[그림 4] 원화가치의 변화



※ 위 그래프에서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41개국 통화와의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것이다.

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경제위기나 환율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다. 특히, 낮은 환율은 앞서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림 4]와 앞의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원화 저평가가 수출증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과 고용이 괴리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국가의 경제위기나 원화가치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다시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하반기 고용 전망은 아직도 안개 속이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이른바 ‘출구전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출구전략이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에만 집중되면서 고용에 줄 수 있는 충격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하다. 상반기 고용지표가 탁월했던 것은 지난 해 상반기의 기저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 겹쳐 ‘금리 인상’의 위협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원화강세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상반기 ‘고용 서프라이즈’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의 고용증가는 금융위기로 인해 줄어들었던 고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반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고용 증가폭이 감소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고용정책이 경제회복과 고용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반기에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 등의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